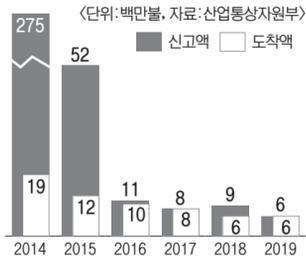


외국인 투자유치 손 놓은 광주시

지난해 신고·도착액 600만달러
외국인직접투자 전국 꼴찌 수준
서울 등 수도권에 투자 77% 몰려

■ 광주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



지난해 광주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사실상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정부가 역대 두번째로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받았다고 했지만 광주시는 오히려 전년보다 뒷걸음질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 신고금액과 도착금액이 각각 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광주 외국인 직접투자는 해가 갈수록 줄어오고 있다.

지난 2014년 1900만달러(10건)였던 광주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은 2015년 1200만달러(19건), 2016년 1000만달러(7건)로 감소하더니 2017년 800만달러(9건), 2018-2019년 각각 600만달러(6건, 9건)로 1000만달러 아래로 추락

했다. 신고 실적은 더욱 어이가 없다. 2014년 2억7500만달러(15건)였던 투자 실적이 2015년 5200만달러(26건)로 -528%로 급감했다. 2016년에도 또 줄어 1100만달러(-472%, 10건), 2017년 800만달러(8건), 2018년 900만달러(7건), 지난해 600만달러(12건)로 1000만달러를 밑돌며 최저를 기록했다. 수치로만 본다면 5년 사이에 -4583% 감소했다. 사실상 광주시가 외국인 투자유

치 사업에 손을 놓은 것이다. 다행한 것은 최근 광주지역 4개 산업단지이 광주경제자유구역으로 예비지정되면서 투자유치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는 점이다.

전남도도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가 반토막 났다.

2017년 도착금액이 1억1500만달러(16건)였던 전남도 유치 실적이 2018년 1억500만달러(28건)로 소폭 줄어들더니, 지난해에는 5600만달러(16건)로 반토막 났다.

같은 기간 신고금액은 2억400만달러(29건), 1억3500만달러(34건), 5400만달러(24건)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보였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도착금액) 127억7700만달러 중 60.1%(76억7400만달러)가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98억600만달러로 76.9%를 차지했고, 수도권 외 지역은 29억4700만달러, 23.1%에 그쳤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미취업 청년 '일경험 드림'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최상준)는 최근 광주지역 미취업 청년 110명을 대상으로 지난 5개월 동안 진행한 '제6기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Dream)' 사업을 마무리했다. '일경험드림 사업'은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워크숍, 네트워킹 모듬 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직업·진로 설계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주경제총협회>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정책 방향 듣는다

중기청, 전국 순회 종합설명회
광주과학기술원서 9일 개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9일부터 다음 달까지 22회에 걸쳐 '2020년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광주·전남지역에서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쉽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다.

9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리는 광주·전남중기청 종합설명회에서는 중기부의 올해 예산·정

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분야별 지원 내용을 들을 수 있다. 금융·기술개발·창업벤처·판로·소상공인(전통시장) 등 분야별 지원에 대한 설명도 진행된다. 특히 지자체와 타 부처도 참여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중기청 측은 설명했다. 올해 중기부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

모인 1조488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 설명회 분야별로는 ▲일반기업 12회 ▲연구개발(R&D) 4회 ▲수출 4회 ▲소상공인·시장 3회 등이 있다.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열린다.

종합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에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자세한 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와 '기업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55.07 (-21.39)	↑ 금리(국고채 3년) 1.28 (+0.01)
↓ 코스닥 655.31 (-14.62)	↑ 환율(USD) 1172.10 (+5.00)

2020 광주전남 경제리더에게 듣는다 송중욱 광주은행장

“소외계층 보듬는 포용금융 실천”

“지역의 동반자 역할을 다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100년 은행으로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6일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52년 동안 걸어온 길은 앞으로 100년 동안 이어져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송 행장은 최초 자행 출신 은행장으로, 오는 9월 취임 3주년을 맞는다.

그는 지난 한 해 성과에 대해 “광주는 행 반백년 역사 중 가장 눈부신 순간”이라고 자평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성 하락에도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송 행장 설명이다. 광주은행은 베트남 증권사 인수를 통한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목포시 1급고와 광산구 1급고 운영을 맡은 데 이어 광주시 서구 1·2급고 재유치에 성공했다.

송 행장은 100년 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한 올해 ‘4대 경영전략’으로 ▲광주·전남지역 영업력 확대 ▲내실있는 실적성장 ▲미래성장동력 발굴 ▲지역의 동반자 역할과 포용금융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시중은행의 지역시장 공략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지역 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오는 2022년까지 여·수신 시장점유율을 광주지역은 4%포인트 늘린 35%, 전남지역은 6%포인트 증가한 20%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전략으로 공공공고를 유치하고 지역 내 산단·지자체·보증재단과 협약을 확대하는 것도 송 행장이 제시한



목포시 등 금고 유치 성공
지자체 협약 영업기반 강화

베트남 진출 기회 마련 등
100년 은행 기틀 마련 최선

영업기반 강화 방안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연말부터 광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시행사·시공사 자금업무를 전담하는 지역개발금융부를 앞세워 지역밀착경영을 강화하고 지자체 1급고를 수행하는 5개 출장소는 모두 지점으로 승격시켰다.

광주은행이 발굴할 미래성장동력은 ‘디지털혁신’과 ‘수도권시장 공략’으로 압축된다. 송 행장은 “디지털혁신 전략을 서비스 중심에서 모든 업무 분야로 확대하겠다”며 “광주·전남 연구 기업이나 출항민 거주 지역에 점포를 늘리며 틈새시장 공략도 병행한다”고 말했다.

점포를 통폐합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광주은행은 지난 한 해 수도권에 30번째 영업점을 내는 등 6개점을 신설했다.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도 송 행장은 올해도 ‘지역상생’을 내걸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총장로5가에 문을 연 ‘포용금융센터’는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될 방침”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서민에 대한 포용금융 실천에 더욱 매진하고 문화·체육·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한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 행장은 올해 표제어로 ‘오직 한 길, 재건 KJB’ (Only One Way, Re-building KJB)를 내걸고 ‘One-Stop 스피드경영’, ‘One-Step 고객중심경영’, ‘One-Spark 열정 리더십경영’ 등 세 가지 실천운동을 임직원에게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성과는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준 지역민과 고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2020년에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세얼굴

“직원들과 소통으로 성과 창출 노력” “역량 강화·시장개척 최선 다할 것”

오영오 LH 광주전남본부장

“직원들과 소통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안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수행적 업무수행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일 취임한 오영오(55)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장은 광주·전남지역 토지개발, 주택건설,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등의 사업을 총괄한다.

오 신임 본부장은 광주 출생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미시간주립대 도시·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토지공사에 입사해 미래전략실 부장, 미래혁신실장 등 기획과 현장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이권재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

“무역협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무역업계 진흥과 시장 개척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2일 취임한 이권재(54)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수출기업협의회 운영을 비롯해 해외바이어 발굴, 시장개척단 파견, 무역아카데미 운영 등 광주·전남 무역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총괄 지휘한다.

서울 출신인 이 신임 본부장은 1990년 무역협회에 입사해 e거래알선센터장, B2C지원팀장, 물류·남북협력실장, 회원서비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